

# ‘무한도전’ 최강한파에도 체감웃음은 무한상승



유재석이 시청자들에게 ‘삼(#) 웃음 밧’을 뿌리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특집 하우스 인앤아웃을 통해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기 대결에 나선 가운데, ‘집 밖 팀’이 된 유재석이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끝없는 열정을 뽐내며 SNS 조회수 전문가의 포스를 발산해 대결을 승리로 이끈 것

이번 대결을 통해 ‘집 밖 팀’과 ‘집 안 팀’의 멤버들은 온몸을 사리지 않으며 추운 겨울을 즐기는 다양한 꿀팁들을 선사,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토요일 전체 예능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리얼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 566회에서는 특집 ‘하우스 인앤아웃’을 통해 ‘집 밖 팀’과 ‘집 안 팀’으로 나뉘어 각자

의 방식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멤버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들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려 SNS ‘좋아요’ 많이 받기 대결까지 펼쳐 웃음을 핵폭탄을 터트렸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전국 기준 12.5%, 수도권 기준 13.0%를 기록했고, TNMS 수도권 기준으로는 15.6%를 기록해 동시간

## ‘하우스인앤아웃’ 통해 ‘좋아요’ 받기 대결 추운겨울 전디는 다양한 꿀팁 선사 ‘호응’

대 시청률 1위를 굳혔다. 또한 ‘집 밖 팀’ 유재석-정준하-조세호가 얼음바다 앞에서 노천탕을 즐기는 모습(19:37~19:41)은 15.9%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집 ‘하우스 인앤아웃’의 팀은 멤버들의 성향 테스트를 통해 결정됐는데, ‘집 밖 팀’은 조세호가 팀장으로, ‘집 안 팀’은 양세형이 팀장이 되었다. ‘집 밖 팀’은 유재석-정준하-조세호가 됐고, ‘집 안 팀’은 박명수-하하-양세형이 됐다.

먼저 ‘집 밖 팀’은 체감 온도 영하 22도의 한파에 맞서 야외로 나갔다. 이들은 가장 먼저 월미도의 바이킹을 타러 갔다. 더욱 강력한 재미를 위해 반발 티셔츠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며 바이킹에 올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특히 유재석은 자칭 SNS 조회수 전문가를 자처하며 영상 촬영에 열정을 뽐내 보는 이들을 흡소케 만들었다.

세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바이킹 영상을 촬영했지만, 조세호의 실수로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영상이 찍혔고, 유재석은 크게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많은 유저들

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라며 다시 한번 힘을 냈고 이들은 라면 먹방을 찍기 위해 얼음 낚시터를 향했다.

‘집 밖 팀’은 꿈꿨던 낚시터 위에서 추위와 싸우며 ‘라면 먹방’ 영상을 찍었는데, 유재석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무조건 많은 유저(?)들이 볼 수 있게 무한 ‘삼(#)’ 밧을 뿌려 보는 이들을 흡소케 만들었다.

상대편인 ‘집 안 팀’의 영상 조회수를 체크하던 이들은 더욱 강력한 영상을 만들기 얼음 바다로 향했는데, 바다 마저 얼어버린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재석은 바다의 얼음을 직접 먹어보기까지 하며 얼음바다를 인증해 웃음을 안겼다. 세 사람은 마치 핑퐁처럼 얼음 바다 위를 휘저으며 즐거워했고, 마지막으로 온몸의 피로를 가시게 해줄 노천온천을 즐기며 겨울 나기 꿀 코스를 완성했다.

‘집 안 팀’이 된 박명수-하하-양세형은 조세호의 집에서 미션을 수행했다. 이들은 조세호가 없는 조세호의 집에서 웃방부터 주방, 욕실, 거실까지 100% 활용하며 집 안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지 확

실히 보여줬다. 특히 양세형은 꼬마 요리사로 변신해 짬뽕리면부터 스테이크까지 화려한 요리솜씨를 보여줬고 박명수 또한 숨겨왔던 요리 실력을 뽐내며 비주얼까지 훌륭한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집 안 팀’은 살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영화를 보기도 하며 어느 때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집 밖 팀’의 영상과 조회수를 확인한 후 경쟁에 불이 붙었다. 박명수는 조세호의 욕실을 점령해 거품 반신욕을 하며 색다른 겨울 나기를 선보였다. 또한 유행하는 ‘고독한 박명수’라는 오픈 채팅방에 직접 셀프 인증을 하며 생애 첫 모바일 팬미팅을 열어 잇몸 만개 웃음을 보여줬다.

‘집 밖 팀’과 ‘집 안 팀’은 조세호의 집에서 다시 만나 SNS 영상의 최종 ‘좋아요’ 스코어를 확인했다. 총 3개씩의 영상을 올린 두 팀은 막상 막막의 결과를 보였지만 결국 16개 차이로 ‘집 밖 팀’이 승리했다.

이처럼 두 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겨울 나기를 선보였는데, 이는 추운 겨울 시청자들에게 1석 2조의 웃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웃음을 향한 끝없는 멤버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 아이콘, 11일째 음원 차트 정상

그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가 11일째 음원차트 정상을 기록하며 연일 자체 최고 성적을 경신하고 있다.

아이콘의 정규 2집 ‘RETURN’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는 4일 오전 9시 기준 음원 사이트 멜론, 엠넷, 지니, 올레, 소리바다, 빅스 등 6곳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이후 무려 11일째 정상 행진이다. 1주만 지나도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음원 시장의 흐름이지만 아이콘은 오히려 1위 차트를 점점 넓려가며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다.

최대 히트곡 ‘취향저격’의 성적을 넘어선 아이콘은 연일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날개를 달았다.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와 따뜻한 감성이 부여된 ‘사랑을 했다’는

많은 가수들의 컴백에도 끄떡없이 연초 최대 히트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9일째인 지난 2일 오후 1000만 뷰를 돌파하며 큰 사랑을 입증했다.

2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아이콘은 그 동안의 노력과 성장이 집약된 앨범을 통해 음악적인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이콘 멤버들은 3일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스페셜 MC, JTBC 예능프로그램 ‘이성형님’ 등 방송 활동을 통해서 숨겨진 끼를 방출하며 친근한 매력까지 발산하고 있다.

특히 ‘이성형님’ 방송 당시에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가요계와 방송가를 이우르는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 tvN 단막극, 의미 있는 종영

tvN의 첫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가 호평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tvN ‘드라마 스테이지’는 신인 작가들의 ‘데뷔 무대’라는 의미를 담은 tvN 단막극이다. CJ E&M의 사회공헌사업 오픈(O’PEN)의 지원을 받은 신인 드라마 작가 10인의 작품들을 지난 해 12월부터 선보였다. 다양한 주제의 완성도 높은 드라마들이 방송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드라마 스테이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 닿아 있는 크고 작은 삶의 이야기를 담아 대미 공감을 얻었다.

특히 최근 시청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막극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tvN이 앞장서 단막극을 선보이며 업계 신선함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오픈 신인 작

가들이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등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윤현기 감독(B주인과 러브레터), 장정도 감독(직립보행의 역사)과 같이 연출을 꿈꾸는 신인 감독들에게도 데뷔 무대가 되어준 것.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연출가로 임명된 윤현기 감독은 “진한 친구들과 소풍을 다녀온 기분이다. 이처럼 신인 작가와 PD가 발굴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지속발전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준 시청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풍가는 날’의 이정민 작가는 “글로벌 존재했던 작품이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영상화 되는 작업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경험이자, 저에게는 비로소 드라마 작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한 발 나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데뷔 소감을



밝혔다. 신인 작가 및 PD 뿐만 아니라, 신예배우에게도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 ‘문집’의 신은수와 정재원, ‘우리는 빛나 빛나 빛나’의 유은비, ‘직립보행의 역사’의 구구단 미나, 변우석 등이 톡톡 튀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 밖에도 조여정, 송지효, 강예원, 조우진, 원미경, 동방우(명계남), 김동원, 명세빈, 박희분, 이희준, 이진희, 김민해, 이주승, 김예원, 한준 등 개성 강한 연기파 배우들도 단막극의 의미에 동참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기혁 CJ E&M 편성 팀장은 “참신하면서도 작품성까지 갖춘 10개의 단막극들이 선보여지며 많은 성원을 받았다. 드라마 업계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지는 데 ‘드라마 스테이지’가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한 의미 있는 시

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양질의 드라마를 소개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드라마 스테이지’의 의의를 전했다.

한편 오후 2기 드라마 스토리텔러 모집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오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 윤도현, 22일 ‘널 부르는 노래’ · ‘감기’ 동시 발매



가수 윤도현이 새로운 디지털 싱글 두 곡을 발매한다.

4일 윤도현은 오는 22일 신곡 ‘널 부르는 노래’, ‘감기’를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곡을 위해 영

국으로 가 모든 작업을 직접 프로듀싱했다. 또 비틀즈의 전 메인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인 조지 마틴(George Martin)이 장담한 에어 스튜디오(Air Studio)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을 마쳤다.

아울러 윤도현은 믹싱, 마스터링 및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영국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했다. 그는 ‘널 부르는 노래’ 발매 전 영국을 로케이션 뮤직비디오 트레일러를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메이킹 영상도 선공개한다.

윤도현의 ‘널 부르는 노래’ 트레일러 A는 5일, 트레일러 B는 12일, 트레일러 C는 19일, 메이킹 영상은 21일 선보인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음력 12월 20일)



▶**신세**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목표를 정해 차분히 계획대로 추진하면 차질이 없겠다. 모든 문제는 흐르는 물처럼 풀어야 한다. 순리대로 행하라. 급히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4, 5, 10월 생 남쪽 일 해될 듯.



▶**신세**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온다. 마음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이므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 말, 양, 쥐, 개미를 좋아했다 미움으로 변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성격 때문이다.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으라.



▶**신세**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다면 사회나 가정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 현대에는 양심이 있어야 정안이 부유해진다. 활동할 능력이 되면 마음껏 활동하라. 여자라고 못할 것 없지 않은가.



▶**신세** 포부는 크나 모든 일이 체계가 잡히지 않고 정리가 잘 되지 않으니 조금은 답답하다. 곧 풀리고 성취할 수 있다.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때. 들뜬 기분에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돼지, 원숭이, 뱀띠가 도움 줄 듯.



▶**신세** 사람 마음은 각기 달라 상대방 마음속까지 헤아릴 수는 없다. 심부 경계하는 자세로 접근하라. 1, 9, 12월생은 애정운도, 금전운도 차차 안정되고 있으니 기본 전환해 새로운 길에 속에서 행복을 찾을 것.



▶**신세** 이렇듯 저렇듯 망설임이 많은 수. 욕심이 많아 현혹할 염려가 있다. 자기 것만을 위해 전력하고 만족함을 얻으라. 돼지, 범, 뱀, 원숭이를 믿는 것은 좋으나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관재수 따르니 욕심은 금물.



▶**신세** 서로 기쁨과 즐거움이 교차할 수. 여러 모임으로 지출도 많겠으나 수입도 있겠다. 기혼여성엔 직업을 갖고 싶으면 부업으로 작게 시작하라. 짝퐁한 재미를 볼 수 있겠다. 10, 11 12월생 파란색 계열 금물.



▶**신세** 꾸준함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보다는 현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자신 없이 하는 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하는 격이다. 용기가 필요하다. 3, 7, 12월생은 남녀 간 한 발씩 양보해 성격을 맞추라.



▶**신세**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내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는 손해 볼 경우가 있다. 애정에 실패한 사람 여자는 연하, 남자는 연상이 따른다. 좋은 인연이 될 듯하다. 금전 조달은 될 듯하면서 침체 상태가 될 듯.



▶**신세** 혼자 욕심을 부리기보다 남을 돕는 이에게 큰 이득이 생긴다. 차근차근 탐을 쌓든 배품면 한꺼번에 복이 올 수다. 4, 8, 10월생 신병이 약화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 염려된다. 애정에는 욕심을 버려라.



▶**신세** 사소한 일로 오해가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준다. 성급히 굴지 말라. 참는 자세가 복이 있다. 애정은 부정이라 생각하는 것을 삼가라. 주위에 보이지 않는 운이 수없이 많음을 인식하고 언행을 조심하라. 구설이 따른다.



▶**신세** 자신이 저질러 놓고 감당하지 못 할 것 같다면 하지 말라. 가끔 엉뚱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성격을 고치라. 2, 3, 7월생 생업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켜야 하고 안정도 필요하다. 당신 아내가 화제가 직전임을 알고 있는지.